

皮日休의 〈三羞詩〉 연구*

박 혜 경**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사상적 근거와 정치관 |
| II. 창작 동기와 제재 | V. 맺음말 |
| III. 〈三羞詩〉의 현실 비판의식 | |

I. 머리말

〈三羞詩〉는 皮日休의 《皮子文藪》 제10권에 수록된 세 수로 이루어진 組詩로 ‘세 가지 부끄러움’을 노래하였다. 皮日休는 866년(咸通 7년)에 과거에 낙방한 후 壽州로 돌아가 자신의 산문과 시가를 모아 총 10권으로 엮었다. 皮日休의 시는 《松陵集》과 《全唐詩》에 수록된 작품을 모두 합치면 약 400여 수가 전해진다. 《皮子文藪》에 수록된 시는 총 35수로 그의 전체 시가 중 약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대 학자들을 비롯하여 이후 논자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는 작품들 역시 이 안에 포함되어있다. 皮日休는 晚唐의 시인으로 문학사에서 그는 주로 현실주의 시인으로 일컬어 지는데 그 이유 역시 《皮子文藪》에 수록된 〈正樂府〉와 〈三羞詩〉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¹⁾ 중국에서는 1980년 이후 皮日休 연구가 활기를

* 본 논문은 2020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연구전담 조교수

1) 임원빈은 皮日休의 전체 시 중에서 현실주의적 시가는 소수이며 오히려 대부분

띠기 시작했다. 1982년에는 蕭滌非가 현존하는 판본들을 비교하여 교감, 정리하고 《全唐詩》에 수록된 나머지 시가를 첨부한 《皮子文藪》(上海古籍出版社)를 출간하였으며 2018년에는 王錫九가 校註한 《松陵集》이 출간되었다. 蕭滌非는 校勘을 위주로 하고 注解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류성준의 《晚唐 皮日休 詩攷》 이후로 皮日休와 그의 문학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어 그의 散文과 詩, 사상과 문학을 주제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正樂府〉 번역서가 출간되었다.²⁾ 이와 비교하여 현재까지 〈三羞詩〉 전 편에 대한 번역이나 注解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단독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³⁾ 본고는 皮日休의 현실주의적 문학관을 잘 반영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족한 〈三羞詩〉에 대하여 그 창작 동기와 체제,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그 안에 나타난 皮日休의 현실 비판 정신과 시의 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창작의 동기와 체제 선정의 배경을 〈三羞詩〉 각 편의 서문을 통하여 분석하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서의 기록이나 자료들과 대조하겠다. 다음 단계로 〈三羞詩〉 각 편의 시문을 분석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그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三羞詩〉에 나타난 皮日休의 비판의식과 사상적 근거를 탐구하고 과거 응시자로서의 皮日休가 時政에 대한 통찰과 비판의식을 어떻게 詩化하였는지 그 구상의 특징을 고찰해 보겠다.

본이 詠物이나 隱逸을 노래한 것들이므로 오히려 ‘隱逸’을 지향한 시인으로 봄이 합당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임원빈, 《〈松陵集〉 중의 皮日休 詩歌研究》, 《中國學研究》 第43輯, 2008, 189쪽.

- 2) 류성준, 《晚唐 皮日休 詩攷》, 《中國學研究》 第4輯, 1988. 元稹·皮日休(정호준 역), 《신제악부/정악부》, 지식음만드는지식, 2012.
- 3) 류성준은 위 논문에서 皮日休 시의 사실주의적 특성을 서술하면서 〈三羞詩〉 제2수와 제3수를 완역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三羞詩〉 전체에 대한 주석이나 해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본고를 작성하면서 류성준의 번역을 참고하였으나 시구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은 시 창작 배경과 동기에 근거하여 달리 해석하였다.

II. 창작 동기와 제재

1. 《皮子文藪》 편찬 목적과 〈三羞詩〉의 연관성

皮日休는 〈三羞詩〉의 창작 동기와 목적을 각 편의 序文으로 밝히고 있다. 더욱이 〈三羞詩〉는 《皮子文藪》 속에 수록되어 분명한 목적이 작가에 의해 공개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皮子文藪》는 총 10권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0권에는 35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는 〈文藪序〉에서 아래와 같이 창작 경위와 동기를 밝히고 있다.

“咸通丙戌中，日休射策不上第，退歸州東別墅，編次其文，復將貢于有司。發篋叢萃，繁如薶澤，因名其書曰《文藪》焉。”

咸通 丙戌年(866년)에 일휴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壽州⁵⁾의 집으로 돌아와 글을 정리하여 다시 有司⁶⁾에 바치고자 한다. 글 상자를 열어 모으니 번다하기가 풀이 무성한 물가와 같아 책 이름을 《文藪》라고 하였다.

그 스스로 밝혔듯 《皮子文藪》의 직접적인 편찬한 동기와 목적은 ‘省卷’을 위함이었다. 省卷은 納卷이라고도 하는데 과거 응시자가 자신의 글을 모아 禮部考試(省試) 전에 규정에 따라 禮部에 바치는 것으로 예비 시험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⁷⁾ 〈文藪序〉에는 또 “원차산(원결)이 《文編》

4) 제1권부터 賦·諷悼·文·碑銘讚·文論頌序·箴·雜著·書·詩 순서로 구성되어있다.

5) ‘州東’이란 壽州를 가리킨다. 壽州는 唐代 행정구역상 淮南道에 속했는데 지금의 安徽省 淮南·壽縣 일대에 해당한다.

6) 蕭滌非는 “(皮日休의) 自序에서 ‘글을 정리하여 다시 有司에 바치고자 한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곧 行卷·溫卷 류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自序說 ‘編次其文，復將貢于有司’，可見就是行卷，溫卷一類的東西).”라고 하였다. 皮日休 著，蕭滌非·鄭慶篤 整理，《皮子文藪》，上海古籍出版社，2019，1-2쪽. 傅璇琮 역시 李觀의 《帖經日上侍郎書》와 〈文藪序〉를 들어 당시 禮部侍郎에게 자신의 평소 글을 모아 바치는 省卷이 하나의 제도였다고 설명하였다. 傅璇琮，《唐代科舉與文學》，中華書局，2020，255-256쪽.

을 有司에게 바쳤는데 禮部 侍郎 楊浚이 그 문집을 보고 탄식하며 “일등도 원결을 욱보일 뿐이로다!”⁸⁾라고 하였다. 이 글이 감히 양공의 탄식을 바랄 수는 없으나 당시 지은 것들이 한번 알려지기를 바랄 뿐이다(比見元次山納文編于有司, 侍郎楊公浚見文編, 歎曰: “上第, 汚元子耳!” 斯文也, 不敢希楊公之歎, 希當時作者一知耳.)”라고 하였다. 楊浚은 당시 禮部 侍郎으로 있으며 科擧와 관련된 업무 담당했던 인물로서 문인들이 그에게 시를 선보였다는 기록이 있다.⁹⁾ 《皮子文藪》에 수록된 글들은 省卷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그 안에 수록한 글들 역시 이에 부합하는 것 위주였다. 그가 “위로는 먼 잘못을 벗겨내고 아래로 가까운 과실을 보충한다(上劾遠非, 下補近失).”¹⁰⁾라고 밝힌 것은 그 글이 사회적 공익을 위한 ‘美刺’의 문학관에 기초한 것임을 나타낸다.

〈三羞詩〉는 이를 가장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그 안에 묘사된 현실과 그에 대한 시인의 생각과 감정은 ‘관리가 될만한’ 지식인으로서의 사상과 정치관에 입각한 것이다. 〈三羞詩〉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세 가지 부끄러움(三羞)’을 노래한 것으로 五言 古體의 형식으로 창작되었다. 주지하듯이 孟子는 ‘四端’을 역설하였는데 그 중 ‘義’의 실마리가 되는 마음이 ‘羞惡之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말하며 이것이 있어야만 사람은 사람다워질 수 있고 王道 정치가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다.¹¹⁾ 〈三羞詩〉에서 皮日休가 느끼는 ‘羞’는 그가 당시 현실의 ‘부정의’를 보고 느끼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7) 程千帆은 《唐代進士行卷與文學》에서 行卷과 納券은 성격과 목적이 다른 것이라고 보았다. 行卷은 과거에 응시한 擧자가 자신의 글을 사회 명망가에게 바쳐 추천해줄기를 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納卷(省卷)은 禮部試에 응시하기 전 禮部 主司官에게 바치는 것이었다. 傅璇琮, 앞의 책, 255-256쪽.

8) 이 이야기는 《全唐文》 卷381, 元結, 〈文編序〉 중 “侍郎楊公見《文編》歎曰, 以上第汚元子耳, 有司得元子是賴”를 인용한 것이다.

9) 《唐才子傳》 卷2에 수록된 〈張繼傳〉 속 “天寶十二年禮部侍郎楊浚下及第”에도 禮部 侍郎 楊浚에 관한 언급이 있다.

10) 《皮子文藪》, 〈文藪序〉.

11) 《孟子》 卷3, 〈公孫丑上〉, “無羞惡之心, 非人也,……羞惡之心, 義之端也.”

며 그 안에는 이를 ‘초래한 자들에 대한 미움’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가 과거를 주관하는 관리에게 바치는 글 중에 이 시를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 국가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리 선발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중국에는 隋나라 이후 科擧를 통하여 관리를 선발하였고 그 이전에도 察擧 등을 통해 지방의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다. 察擧는 지방관이 직접 지역의 인물을 방문하여 살핀 후 조정에 추천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이후 과거제도 가운데 “鄉貢의 최초 형태”라고 볼 수 있다.¹²⁾ 漢文帝 15년의 察擧에서 晁錯이 선발되었는데 당시 文帝는 조서를 내려서 “국가의 근본에 밝고 인사에 통달하고 능히 직언과 극간을 잘할 수 있는 사람”¹³⁾을 천거하도록 하고 策文에 “짐이 부덕한 점과 관리의 행정이 불공평한 점, 정치가 옳게 실행되지 않은 것, 백성이 편안하지 않은 것 등 이 네 가지 결점에 대하여 모두 그 뜻을 진술하여 숨기지 말라”는 구체적인 작성 요건을 밝혔다.¹⁴⁾ 晁錯는 이에 따라 대책문을 작성하면서 “천하를 다스린 지 16년이 되었는데 백성이 더 풍요롭지 못하고 도적이 없어지지 않고 변경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폐하께서 친히 못 신하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¹⁵⁾라고 하였다. 이처럼 제왕과 관리·치국·민생에 대하여 直諫할 수 있는 인재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수용하는 문화는 儒道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漢代부터 시작되어 唐代에도 이어졌다. 牛李黨爭의 발단이라고 이야기되는 牛僧孺와 李宗閔의 대책문도 時政과 당시 집권 세력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다.¹⁶⁾ 皮日休 역시 《皮子文藪》에 朝廷과 관리, 정치와 민생

12) 金諱(강길중 역), 《중국문화와 과거제도》, 중문출판사, 1995, 36쪽.

13) 《漢書》 卷49, 〈晁錯傳〉, “明於國家大禮, 通於人事之始終. 及能直言極諫者.”

14) 《漢書》 卷49, 〈晁錯傳〉, “朕之不德, 吏之不平. 政之不宜. 民之不寧, 四者之闕, 悉陳其志, 毋有所隱.”

15) 《漢書》 卷49, 〈晁錯傳〉, “臨制天下, 至今十有六年, 民不益富, 盜賊不衰, 邊境未安. 其所以然, 意者陛下未之躬親而待群臣也.”

16) 두 사람이 급제한 뒤에는 당시 재상이었던 李吉甫와 그의 아들 李德裕를 대표로 하는 세속 고위 관리들과 과거 출신의 관리들 사이에 봉당이 형성되어

에 관한 통찰과 비판을 담은 글을 실었으며 그 중 〈三羞詩〉와 〈正樂府〉는 날카로운 현실 비판의식을 시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正樂府〉의 서문에는 “이러한 이유로 일찍이 슬퍼하고 두려워할 만한 것 중에 읊고 노래하기에 시의적절한 것이 총 10편 있어 正樂府라 명명하였다(故嘗有可悲可懼者, 時宜於詠歌, 總十篇, 故命曰正樂府詩).”라고 밝히고 있는데 〈三羞詩〉는 이와 비교하여 과거에 낙방한 당년을 제재로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한 時宜性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는 각 편에 구체적으로 창작 시기와 배경에 관하여 밝히고 있어 더욱 사실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2. 〈三羞詩〉의 제재

1) 朝廷의 정치

제1수는 866년 낙제 후 장안을 떠나는 皮日休가 조정에서 쫓겨나는 한 관리를 목격하고 이를 제재로 삼았다. 序에는 그가 이 시의 창작 동기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丙戌歲, 日休射策不上, 東退于肥陵. 出都門, 見朝列中論犯當權者, 得罪南竄, 叩詔辰發, 持法吏不容一息留私室. 視其色, 若將厭祿位, 悔名望者. 皮子窺之, 惘然泣, 衄然羞, 故作是詩以贖之.”

丙戌년(866년)¹⁷⁾에 일휴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지 못하고 동쪽 肥陵¹⁸⁾으로 돌아갔다. 도문을 나서는데 朝列에서 議論 중 당권자를 거스른 죄로 남으로 쫓겨가는데 卯時에 명이 내려지고 辰時에 떠나면서 집행관이 잠시 私家에 들르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의 기색을 보니

갈등이 수십 년 이어졌다. 皮日休가 과거에 낙방한 咸通 7년은 李德裕가 축출되고 牛黨에 속하는 白敏中이 재상에 오르고 난 후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다.

17) 唐 懿宗 咸通 7년으로 866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18) “肥陵”은 淮南의 壽州를 가리킨다.

관리의 지위에 염오를 느끼고 그 명망을 후회하는 것 같았다. 나 皮子는 그것을 보고 침통하여 눈물이 흐르고 기가 죽어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를 지어 전별하였다.

唐代 省試(禮部試)는 봄에 있었으므로 皮日休는 866년에 봄에 과거에 낙제하였을 것이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느껴 이 시로 전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어지는 시문에는 당대 朝廷 내의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皮日休가 이 시를 창작하던 당시는 懿宗의 아버지인 선왕 宣宗이 환관 세력들에 의해 시해당하고 환관의 권력이 황제와 대신들을 압도하던 시기였다. 《舊唐書·懿宗本紀》에서는 懿宗의 치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찬하였다.

“贊曰：邦家治亂，在君聽斷。恭惠驕奢，賢良貶竄。凶豎當國，憊人滿朝。奸雄乘變，貽謀道消。”

국가가 난리를 다스리는 것은 군주가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에 달렸다. 恭惠(懿宗)¹⁹⁾은 교만하고 사치하였고 현량한 자는 쫓겨났다. 환관²⁰⁾이 나라를 담당하고 간사한 자가 조정에 가득하였다. 간웅이 그 틈을 타 일어나니 후대에 물려주는 정책의 도가 쇠하였다.

懿宗은 정사보다는 향락에 빠져 사치를 일삼아 실질적 정무는 환관과 그들과 결탁한 일부 신료들에 의해 장악되었다.²¹⁾ 皮日休는 이날의 사건

19) “恭惠”는 懿宗의 諡號이다. 《舊唐書》 卷19, 〈懿宗本紀〉, “懿宗昭聖恭惠孝皇帝諱漼.”

20) “凶豎”는 소인배를 이르는 말인데 주로 宦官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凶惡的小人，多指宦官。”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編纂,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937쪽.

21) 《資治通鑑》 卷250, 唐紀66, 咸通 7년에는 “황상이 음악과 연회를 열어 노는 것을 좋아하여 전 앞에 궁중 악사가 늘 오백 명 가까이 있었다. 매월 연회가 십여 차례 이하인 적이 없고 물과 땅에서 나는 재료의 음식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음악을 듣고 배우를 보는 것에 실증을 내지 않았으며 하사하는 금액이 걸핏하면 천 민에 이르렀다(好音樂宴遊，殿前供奉樂工常近五百人，每月宴設不減十餘，水陸皆備，聽樂觀優，不知厭倦，賜與動及千緡).”라는 기록이 있

을 제재로 당시 君臣의 道가 사라진 조정의 문제를 비판하였다.

2) 外治의 문제

제2수의 제재는 南詔와의 전쟁에 동원된 許昌 지역 백성들의 고통이다. 南詔는 8세기 무렵에 雲南 일대에 蠻族이 세운 국가로 咸通 년간에는 중원 지역까지 치고 올라왔다.²²⁾

“日休旅次于許傳舍，聞叫吽之聲，動於城郭。問於道民，民曰：“蠻圍我趾，

- 다. 뒤이어 경관이 좋은 장소로 수시로 행차하고 이를 수행하는 인원이 10여 만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으니 그 사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 22) 南詔는 隋代 말에서 唐代 초인 8세기 무렵 현재 雲南 지역 일대의 南詔國을 말한다. 당시 洱海 주변으로 여섯 부락이 있었는데 각 부락의 우두머리를 ‘詔’라고 불렀으므로 ‘六詔’라고도 하였다. 그 중 蒙舍詔는 六詔 중 가장 남쪽(지금의 雲南 巍山縣 蒙化壩) 지역을 근거지로 하였기에 ‘南詔’라 불렀는데 唐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런데 安史의 난 이후 南詔는 종종 吐蕃과 연합하여 西川 일대 변경을 침략하면서 唐의 골칫거리가 되었다.(王仲犛, 《隋唐五代史》, 中華書局, 2007, 663-666쪽). 宣宗 大中 12년(858년) 唐 安南都護 李涿이 수탈과 폭정을 일삼아 토착민들에게서 강제로 소와 말을 할값에 사들였다. 분노한 지역민들이 南詔 병사들을 인도하여 安南 경내에서 소요를 일으켰다. 懿宗 咸通 元年(860년)에도 安南 주민들이 또 南詔를 끌어들여 병사 3만이 모여 交趾를 공격하였다. 咸通 4년에도 南詔가 交趾를 공격하여 15만 명을 죽이고 약탈하였다.(《資治通鑑》 卷248, 唐紀65) 宣宗 때에는 南詔를 비롯한 蠻族을 회유하는 정책이 西川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宣宗 大中 13년(859년)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西川劍南節度使를 지낸 韋臯가 西川의 淸溪道를 개방하여 여러 蠻族과 왕래하고 蜀을 경유하여 입공하게 하였다. 또 蠻族의 자제들을 선발하여 成都에서 교육받도록 하였는데 50년을 이어가자 그 수가 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杜棕이 西川節度使가 된 후에 그 인원수를 줄여줄 것을 조정에 奏請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시행되었다. 이에 南詔 7대 왕인 豐祐가 불만을 품고 변경 지역에서 소요를 일으켰다. 唐의 南詔 회유 정책의 기초가 바뀐 후 南詔는 交趾를 침략하고 懿宗 咸通 년간에는 交趾와 朱崖를 비롯한 남방 지역을 수차례 침략하였다. 懿宗 때에는 南詔에 대하여 외교적인 회유책보다는 주로 무력 진압책을 펼쳤다. 皮日休가 이 시를 창작한 咸通 7년을 전후한 몇 년간의 《資治通鑑》의 기록에는 南詔와의 전쟁의 경과뿐 아니라 그 와중 戰功을 다투는 지방관들의 권력 투쟁과 혼란을 틈타 치부의 기회로 삼는 비리 상황들이 다수 기록되어 있다.

奉詔徵許兵二千征之，其征且再，有戰皆歿，其哭者，許兵之屬。”嗚呼！揚子不云夫：“朱崖之絕，捐之之力也，否則介鱗，易我衣裳。”²³⁾ 其是之謂耶？皮子爲之內過曰：“吾之道，不足以濟時，不可以備位，又手不提桴鼓，身不被兵械，恬然自順，恬然自樂，吾亦爲許師之罪人耳。”作詩以吊之。”

日休는 여정 중 許昌의 여인숙에 머물렀는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 성곽으로 가서 도민에게 물어보자 “오랑캐들이 우리 交趾를 에워싸 이를 토벌하려고 조서를 받들어 許昌의 병사 이 천명을 징집하였는데 원정이 거듭되어 전쟁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곡을 하는 자들은 許昌 병사들의 가족입니다.”²⁴⁾라고 말했다. 아아! 揚雄이 “朱崖²⁵⁾를 끊은 것은 賈捐之²⁶⁾의 힘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버리지 같은 오랑캐들이²⁷⁾ 우리의 옷을 바꾸어 버렸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이를 말하는 것 아닌가? 나 皮日休는 이 때문에 가책을 느껴 “나의 도가 시국을 구제하기에 부족하고 관직에 있지도 못하였으며 또 손에 복채를 들지 않았고 몸에 무기를 두르지도 않았다. 태연하게 나 홀로 편안하고 나 홀로 즐거우니 나 역시 허창의 군사에게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시를 지어 그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皮日休가 목격한 상황은 南詔와의 전쟁에 징집되어 전사한 許昌 백성의

- 23) 이 구절은 揚雄의 《法言》 卷13, 〈孝至〉에 “주애를 끊어낸 것은 가연지의 힘이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버리지 같은 오랑캐들이 우리의 의상을 바꾸어놓았을 것이다(朱崖之絕，捐之之力也，否則介鱗易我衣裳).”를 인용한 것이다. 《後漢書》 卷48에 수록된 〈楊終傳〉 속에도 “이전 효원제께서 주애의 군을 버리고 광무제께서 서역의 나라들을 끊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버리지 같은 오랑캐들이 우리의 의상을 바꾸어놓았을 것이다(故孝元棄珠崖之郡，光武絕西域之國，不以介鱗易我衣裳).”라는 구절이 있으며 唐 睿宗의 명으로 《後漢書》를 주석한 李賢은 “의상은 中國을 말한다(衣裳，謂中國也).”라고 주했다.
- 24) 《資治通鑑》， 卷250, 唐紀66, 咸通 7년(丙戌, 866년)의 기록에도 당시 南詔와 전쟁에 許昌의 戍兵을 이끌고 가 토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 25) 南詔 인근 지역 ‘朱崖’를 가리킨다. 지금은 海南省 海口市 일대이다.
- 26) 賈捐之은 西漢의 정치가이자 문학가로 賈誼의 증손자이다. 班固의 《漢書》 卷64에 수록된 〈賈捐之傳〉에는 漢 元帝에게 朱崖를 두고 南蠻과 싸우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음을 지적하고 關東 지역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제하는 것을 우선하기를 청하는 상소가 기록되어 있다.
- 27) ‘介鱗’은 갑각류 벌레라는 의미인데 먼 곳의 오랑캐에 대한 蔑稱으로도 사용되었다.

고통이었다. 懿宗 때 南詔의 황제 世隆이 邕州²⁸⁾과 交趾²⁹⁾를 차례로 함락시켜 수년간 점거하였다.³⁰⁾ 皮日休는 위에서 西漢의 賈捐之가 상소한 일에 대한 揚雄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漢 武帝는 南越을 멸망시키고 朱崖와 儋耳 두 지역에 郡을 설치하고 한족으로 구성된 吏卒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朱崖의 토착민들이 그들에게 거세게 저항하며 한족 관리를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켜 漢은 빈번하게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시키는 소모전을 계속하였다. 漢 元帝는 즉위 후 이를 종결시키고자 대신들을 불러 모아 대규모 군사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때 당시 待詔로 있던 賈捐之가 출정을 반대하였다.³¹⁾³²⁾ 唐代 懿宗 년간은 대 南詔 정책이 무력 진압 일변도였으며 河南의 백성들을 징집하여 출정하는 일이 잦아 서문에서 묘사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皮日休는 揚雄의 말을 인용하여 지금은

28) 邕州는 지금의 南寧을 가리키며 고대에는 南越의 땅이었으나 漢 武帝 때 복속되었다.

29) 交趾는 지금의 베트남 북부 하노이 지방의 옛 이름이다. 본래는 중국 북방인들이 南蠻의 풍속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이후 南蠻인들이 사는 지역의 이름으로 통용되었다. 漢 武帝 때 南越을 멸망시키고 그곳에 交趾郡을 설치하였으나 그 이후로 漢代 뿐 아니라 唐代에도 난리가 끊이지 않았다.

30) 唐 조정과 南詔의 싸움으로 750~785년에 전쟁이 있었고 이후 829~830년과 839~870년에 이차, 삼차 충돌이 있었다. 南詔 황제 世隆이 唐 懿宗 때 邕州와 交趾를 차례로 공격하고 수년간 점거하였다. 唐 조정에서는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수차례 군사를 파견하였으나 쉽게 진압되지 않았다. 그러다 懿宗 咸通 7년(866년) 겨울 高駢이 交趾를 포위하고 南詔을 토벌하였다. 唐 懿宗 시기 南詔의 침입과 대응의 기록은 《舊唐書》와 《新唐書》의 《懿宗本紀》를 비롯하여 《資治通鑑》, 《唐紀》 66권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31) 이와 관련된 전후 배경과 賈捐之의 상소는 班固의 《漢書》 卷64에 수록된 《賈捐之傳》과 司馬光 主編, 《資治通鑑》 卷28, 漢紀20, 元帝 初元 2년의 기록에서도 상세히 볼 수 있다.

32) 賈捐之는 賈誼의 증손자였다. 당시 환관 石顯이 元帝의 총애를 받아 전권을 휘둘렀는데 賈捐之가 그와 반목하며 元帝에게서 멀어졌다. 그러다 楊興이라는 신진 관리와 결탁하여 관직을 얻고자 계략을 했다는 죄로 棄市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皮日休가 이러한 인물을 언급하여 당시 정치 상황을 비판한 것은 宦官이 황제를 시해하고 득세하던 당시 상황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賈捐之처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자 제왕에게 직간하는 忠臣이 없음도 함께 비판한 것이다.

3) 内治의 문제

제3수는 866년 淮水 서쪽 지역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백성을 제재로 삼았다. 蝗災와 水災, 旱災는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삼대 자연재해라 불린다. 唐代 기록에만도 40건이 넘는 蝗災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데 咸通 3년에서 10년(862~869년) 사이 칠 년 여간 반복된 병충해는 민간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낳았다.³³⁾

“丙戌歲，淮右蝗旱。日休寓小墅于州東，下第後，歸之，見穎民轉徙者，盈途塞陌。至有父捨其子，夫捐其妻，行哭立丐，朝去夕死。嗚呼！天地誠不仁耶？皮子之山居，橈有囊，鏝有炊，晏眠而夕飽，朝樂而暮娛，何能於潁川民，而獨享是爲？將天地遺之耶？因羞不自容，作詩以唱之。”

병술년에 淮西³⁴⁾ 지역에 메뚜기 피해와 가뭄이 들었다. 일휴는 壽州 동쪽의 작은 별채에 머물고자 낙제 후 돌아가는데 영친의 백성들이 이리저리로 피난 가는 자들로 길이 넘쳐나고 거리가 막혀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 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가다 서다 곡하고 구걸하며 아침저녁으로 죽어 나갔다. 오호! 천지가 정녕 仁하지 않단 말인가? 皮子의 산속 집은 옷을 걸어놓을 헛대가 있고 밥 지을 솥이 있으며 아침 늦도록 자고 저녁에는 배가 부르며 아침은 즐겁고 저녁은 즐겁다. 어찌 영친의 백성을 두고 홀로 이렇게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장차 천지가 그것을 내버려 둘 것인가? 스스로 부끄러움 견디지 못하여 시를 지어 그들을 위로하였다.

皮日休는 壽州로 가는 길에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랑하는

33) 何先成은 중국 역사에서 병충해 피해 범위와 강도가 매우 심각했던 시기를 여섯 가지 꼽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기간이다. 何先成, 〈唐代的蝗災再認識〉, 《唐都學刊》 第30卷 第1期, 2014, 40쪽.

34) 淮右는 淮河 南西路 일대를 말하며 淮西라고도 한다. 皮日休가 낙제 후 향하던 壽州도 이 지역에 속해있다. 지금의 安徽省 江淮地區를 가리킨다.

대규모 피난민들을 목격하였다. 서문에서 그는 직접적 창작 동기를 그들에 대한 동정심과 슬픔, 자책으로 들고 있으나 시문에는 백성이 유민이 되어도 구제하지 못하는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을 표현하였다.

Ⅲ. 〈三羞詩〉의 현실 비판의식

1. 朝廷 내 忠臣의 부재와 인재 등용에 대한 비판

晚唐 시기 조정에서는 牛李黨爭이라 불리는 과거를 통해 관계에 진입한 신진 사인과 세족 사이의 다툼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며 환관이 국정을 농단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皮子世錄〉에서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皮日休는 세족과는 거리가 멀어 그는 갈고닦은 학문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기를 희망했다.³⁵⁾ 그는 과거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인재를 관리로 등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請孟子爲學科書〉를 지어 《孟子》를 과거의 주요 과목으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³⁶⁾ 제1수는 朝廷 내 君臣의 道가 무너져 忠臣이 사라지고 言路가 공정하게 개방되지 않음을 비판하였다.

(1)

01 吾聞古君子, 내가 듣기로 옛날 군자는

02 介介勸其節. 곳곳이 그 절개를 단련하였네.

03 入門疑儲宮, 문에 들어서면 태자 궁을 의심하고³⁷⁾

35) 〈皮子世錄〉, “당조 이래로는 경릉에서 농사짓거나 녹문에 은거하며 모두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의 皮日休에 이르렀다(自有唐已來, 或農竟陵, 或隱鹿門, 皆不拘冠冕, 以至皮子).”, 蕭滌非, 앞의 책, 137-138쪽.

36) 《皮子文藪》, 卷9.

37) “儲宮”이란 太子가 머무는 皇宮 내 宮室을 말한다. “태자궁을 의심한다(疑儲宮)”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懿宗이 왕위에 오

- 04撫已思鈇鉞, 스스로 돌아보며 왕권을 생각하였네.
 05忠者若不退, 충성스러운 자가 물러서지 않았다면
 06佞者何由達, 아첨하는 자가 어떻게 영달하였겠나.
 07君臣一餽膳, 군왕과 신하가 한 반찬을 먹으며³⁸⁾
 08家國共殘殺, 가문과 나라가 함께 죽임을 당하네.
 09此道見於今, 이 같은 도가 오늘날에도 나타나니
 10永思心若裂, 늘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네.
 11王臣方謗謗, 왕과 신하가 함께 충정을 다하면³⁹⁾
 12佐我無玷缺, 내 나라를 보좌하는데 흠결이 없네.
 13如何以謀計, 어떻게 계책을 도모해야지
 14中道生芽蘖, 中道の 새순이 돋으려는가.⁴⁰⁾

른 전후의 역사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宣宗이 사망한 후 보좌에 오른 懿宗은 宣宗이 생전에 지목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宣宗은 서거 전 셋째 아들 夔王을 후사로 삼고자 하였는데 장자가 아니어서 東宮을 세우지 않았는데 大中 13년(859년) 仙藥을 먹고 붕어하였다. 당시 鄆王 李溫은 궁 밖의 十六宅에서 머물고 있다가 神策軍 中尉 王宗實에 의해 궁으로 들어와 왕위를 계승하고 懿宗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資治通鑑》 권 249, 唐紀, 宣宗 大中 13년(859년)에 기록되어 있다. 宣宗은 죽기 전에 당시 樞密使였던 王歸長·馬公儒·宣徽南院使 王居方에게 夔王을 황제로 위촉하라는 조서를 내리고 사망하였다. 그러나 王宗實은 이것이 위 세 樞密使들이 사칭한 조서라고 의심하고 그들을 체포하여 죽이고 鄆王을 황제로 추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학자 趙翼은 懿宗이 宣宗의 실제 장자가 맞았는지 확인할 만한 기록이 없다고 의심하였고 당시에도 새로운 황제인 懿宗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당시 樞密使와 神策軍은 宦官들이 장악하였으며 이 일과 관련된 王歸長·馬公儒·王居方과 王宗實 모두 환관 출신이었다. 懿宗 시기에는 환관의 세력이 조정 대신들을 능가할 정도로 강력해 졌다. 趙翼(이지은 역), 《대당 제국 쇠망사》, 위즈덤하우스, 2018, 507-508쪽.

- 38) 《管子·牧民》의 〈六親五法〉에는 “군왕이 그것을 구하면 신하도 그것을 얻으려 하고, 군왕이 그것을 즐겨 먹으면 신하도 그것을 먹으며, 군왕이 그것을 좋아하면 신하도 그것을 복종한다. 군왕이 그것을 싫어하면 신하도 그것을 숨기려 한다(故君求之, 則臣得之. 君嗜之, 則臣食之. 君好之, 則臣服之. 君惡之, 則臣匿之).”라는 구절이 있다.
- 39) “謗謗”은 《楚辭·離騷》중 “내 바른말이 우환이 될 줄 알지만 차마 그만두지 못한 것은 저 하늘이 바로 잡으시리라, 오로지 훌륭한 분 때문이었네(余固知謗謗之爲患兮, 忍而不能舍也. 指九天以爲正兮, 夫唯靈脩之故也).”에도 쓰였는데 王逸 注에 “謗謗은 忠貞스러운 모습이다(貌也謗謗, 忠貞貌也).”라고 하였다.

- 15憲司遵故典, 사헌관은 옛 규정을 따라
 16分道播南越, 갈림길에서 남월로 보내버리네.
 17蒼惶出班行, 황급하게 조정을 나서니⁴¹⁾
 18家室不容別, 가족들은 이별을 건디지 못하네.
 19玄鬢行爲霜, 검은 살쩍에는 서리가 내리고
 20清淚立成血, 맑은 눈물은 이내 피눈물이 되네.
 21乘遽劇飛鳥, 타고 있는 수레는 나는 새처럼 빨라
 22就傳過風發, 바람을 일으키며 재빠르게 지나가네.
 23嗟吾何爲者? 아, 나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24叨在造士列, 외람되어 선비 행렬에 들어가 있네.
 25獻文不上第, 글을 바치고도 급제하지 못하여
 26歸于淮之汭, 회하 굽이지는 곳으로 돌아왔네.
 27蹇蹄可再奔, 발을 절던 말은 다시 질주할 수 있고
 28退羽可後歇, 날개 접은 새는 물러나 쉴 수 있네.
 29利則侶軒裳, 순조로울 때는 고관들과 어울리고⁴²⁾
 30塞則友松月, 막혔을 때는 소나무, 달과 벗하네.
 31而於方寸內, 그러나 이내 마음속

40) 여기서 “中道”는 儒家의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침이 없는 ‘中正’의 道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芽蘖”는 식물의 싹이나 벌목 후 다시 돋은 새순을 말하는데 《全唐詩》에 수록된 시 중 이 단어를 시어로 사용한 사람은 皮日休와 陸龜蒙 뿐이다. “中道の 새순이 돋는다”라는 시상은 《孟子·告子》의 “우산의 나무는 일찍이 아름다웠었다. 그러나 큰 도시의 근교에 있어서 도끼로 베어내니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그 나무가 밤낮으로 자라고 비와 이슬로 윤택해지니 싹과 움이 돌아납이 없지 않을 텐데, 이내 소와 양이 쫓아와 방목하니 이척립 헐벗게 되어버린 것이다. ……하물며 사람에게 있는 것에 어찌 인과 의가 마음에 없겠는가? 그 양심을 놓아버린 것은 역시 나무에 도끼질하는 것과 같이 아침마다 그것을 베어내기 때문이니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孟子曰: “牛山之木嘗美矣,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可以爲美乎? 是其日夜之所息, 雨露之所潤, 非無萌蘖之生焉, 牛羊又從而牧之, 是以若彼濯濯也. ……雖存乎人者, 豈無仁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之於木也, 旦旦而伐之, 可以爲美乎?”)와 유사하다.

41) “班行”은 조정에서의 직위, 조정 등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42) “軒裳”은 관직이 높은 사람을 비유한다. 元結의 《忝官引》, “而可愛軒裳, 其心又幹進”, 沈佺期的 《洛陽道》, “白日青春道, 軒裳半下朝.”에서도 고관을 이르는 말로 쓰였다.

- 32末有是愁結, 이토록 수심의 응어리 있던 적 없네.
 33末爲祿食士, 녹봉을 위하여 선비가 되지 않고
 34俯不愧梁糲, 구부러 풍족한 곡식을 탐하지 않네.
 35末爲冠冕人, 관직을 위하여 살지 않았으니
 36死不慙忠烈, 죽어도 충렬에 부끄럽지 않네.
 37如何有是心, 어찌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38不能叩丹闕, 궐문을 두드리지 않을 수 있나.
 39赫赫負君歸, 혁혁하게 임금을 등지고 돌아와
 40南山採芝蕨, 남산에서 지초와 고사리를 꺾네.

皮日休는 제1-14구까지 조정에서 忠臣이 사라지고 아첨하는 자가 영달함을 한탄하였다. 그는 신하가 임금을 보좌하는데 굳건한 절개를 가지고 왕의 주변을 항상 조심스레 살피며 왕권을 수호해야 함을 역설하였고 이를 위해서 志士가 물러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15-22구는 쫓겨나는 관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위의 구절과 연관 지어볼 때 그가 펼친 ‘議論’이 당권자를 거스른 直諫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죄에 대한 공정한 심의나 신중한 판결도 없이 창졸간에 조정에서 쫓겨나 남쪽으로 추방되는 모습의 묘사는 당시 조정이 공정치 않은 권력 구조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皮日休는 제23-40구에서 낙방하고 돌아가는 심정과 의지를 표현하였다. 그는 선비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을 표현하고 차마 현실을 외면하고 은둔자로 살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해서는 자괴감을 느꼈지만 청렴과 충렬은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다(死不慙)’며 지금의 귀향이 지조를 지키며 다음을 기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었다.

2. 南詔에 대한 정책과 백성의 희생에 대한 비판

《舊唐書·懿宗本紀》과 《資治通鑑》의 咸通 년간의 기록을 보면 당시 淮南 지역을 비롯한 곳곳에서 도적떼가 일어났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수많은 병력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南詔는 남방 지역의 군사 공백을 틈타 주해와 交趾를 다시 점령하였다. 제2수는 南詔와의 전쟁에 희생되는 許昌 지역민들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

(2)

- 01南荒不擇吏, 남황에 관리를 선발하지 않아
 02致我交趾覆, 우리 땅 교지가 뒤집혀버렸네.
 03綿聯三四年, 삼사 년을 내도록 이어지더니
 04流爲中夏辱, 중원까지 흘러들어와 욕보이네.
 05儒者鬪即退, 겁쟁이는 싸움이 시작되자 도망가고
 06武者兵則黷, 용맹한 자는 병사가 되어 욕을 보았네.
 07軍庸滿天下, 전사자의 유품 실은 수레가 천하에 가득한데
 08戰將多金玉, 전쟁의 장수는 금옥이 많기도 하네.
 09刮則齊民癘, 긁어내 백성의 악창을 고치고⁴³⁾
 10分爲猛士祿, 나누어 용사의 녹으로 삼아야 하리라.
 11雄健許昌師, 웅건하여라 허창의 군사,
 12忠武冠其族, 忠武는 으뜸가는 일족이라네.⁴⁴⁾
 13去爲萬騎風, 떠날 때는 만기의 바람이 일었는데
 14住作一川肉, 이제는 냇가의 살덩이 하나가 되었구나.
 15昨朝殘卒回, 어제 아침 살아남은 병사가 돌아오니
 16千門萬戶哭, 천 문 만 호에서 통곡하네.
 17哀聲動閭里, 애달픈 소리가 마을을 진동하고
 18怨氣成山谷, 원한의 기운이 산골짜기를 메우네.
 19誰能聽書蠶, 그 누가 대낮의 북소리 들을 수 있으랴
 20不忍看金鏃, 쇠화살촉을 차마 볼 수가 없네.

43) 《舊唐書》에는 疫病에 대한 기록이 唐代 전시기에 걸쳐 수차례 나타나는데 咸通 年間 疫病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舊唐書》 卷19, 〈僖宗本紀〉와 卷20, 〈昭宗本紀〉에 당시 疫病이 유행하였으며 특히 軍中에서 疫病이 유행하여 사망자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44) “忠武”는 무공이 뛰어난 장수나 관리의 諡號로 사용되었으나 이 시구에서는 忠武軍, 즉 許昌의 군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許州에는 忠武軍節度使가 있었으며 許昌은 그 관할지였다. 王仲榮, 《隋唐五代史》, 앞의 책, 525쪽.

- 21 吾有制勝術, 나는 승리의 술을 가지고 있지만
 22 不奈賤碌碌, 천하고 무능하여 어찌할 수가 없네.
 23 貯之胸臆間, 가슴속에 이를 쌓아놓은 채로
 24 慙見許師屬, 허창 군사의 가족 보기가 부끄럽구나.
 25 自嗟胡爲者? 스스로 뭐 하는 위인인가 탄식하면서
 26 得躡前修躅, 앞에서 닦아놓은 자취를 밟고 있구나.
 27 家不出軍租, 집에서는 군세를 내지 않고
 28 身不識部曲, 이 몸은 부대를 나 몰라라 하네.
 29 亦衣許師衣, 나 역시 허창 병사의 옷을 입고
 30 亦食許師粟, 나 역시 허창 병사의 곡식을 먹네.
 31 方知古人道, 비로소 옛 성현의 도를 알았으니
 32 蔭我已爲足, 나를 덮기에는 이미 족하네.
 33 念此向誰羞, 생각이 이에 미치면 뉘에라도 부끄럽건만
 34 悠悠潁川綠, 아득히 영수는 푸르기만 하다.

제1-10구는 咸通 연간 南詔가 중원을 침입한 정황과 원인, 그 과정에 나타난 부조리를 묘사하였다. 이 시는 “南荒不擇吏”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당시 조정에서 관군을 남방에 주둔시켜 방비하지 않고 무력 충돌이 생길 때마다 북방의 병력을 파견하거나 인근 백성들을 수시로 징집한 정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⁴⁵⁾ 제7구의 “軍庸”은 전사자의 유품을 실은 수레로 許昌에서 징집되어 간 수졸 중 전사자가 매우 많았음을 표현한 것이다.⁴⁶⁾ 이어지는 제8구는 당시 전장의 장수 중에 南詔와 결탁하여 축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서의 기록으로 미루어 이를 백성의 희생과 대비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⁴⁷⁾ 제11-20구까지는 皮日休가 직접 목격한 許昌 지역 백성

45) 당시 중앙 정부는 남부 일대에 무력을 배치해두지 않아 소동이 생길 때마다 북방에서 병력을 파견했다. 趙翼(이지은 역), 앞의 책, 585쪽.

46) “軍庸이란 군대에 있는 容車로 즉 전사자의 의관이나 화상 등을 실어 나르는 수레이다. 庸은 “容”의 通字이다(軍庸, 指軍中容車. 即載運戰死者衣冠·画像等的車. 庸, 通“容”).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編纂, 앞의 책, 5815쪽.

47) 《資治通鑑》卷250, 唐紀66, 懿宗 咸通 6년(865년), “雋州 자사 喻士珍은 탐욕스럽고 교활하여 兩林의 蠻族을 약탈하여 금으로 바꾸었다. 이에 兩林의 만

들의 희생과 고통을 묘사하였다. 제20구 이후에는 이러한 시국을 타개할 지략이 있음에도 등용되지 못하는 자신의 무기력함과 그렇다고 전장에 나가 싸우지도 않으며 안온한 생활을 누리는 부끄러움을 노래하고 있다. 皮日休는 <讀司馬法>에서 백성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통치자에 대하여 “옛날에는 천하를 취함을 민심으로 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천하를 취함을 백성의 목숨으로써 한다(古之取天下也以民心, 今之取天下也以民命).”⁴⁸⁾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제31구의 “古人道”란 백성을 정치의 근본으로 두는 儒道를 가리킨다. 그는 전쟁에 희생된 백성과 그 가족들의 비극을 통하여 ‘民本’의 정치를 펼치지 않는 통치자들과 사익을 추구하며 戰功을 다투는 자들을 비판한 것이다.

3. 民生을 돌보지 않는 정치에 대한 비판

<舊唐書> 卷19, <懿宗本紀>에는 咸通 9년(868년)을 “이 해에 江·淮 일대에 메뚜기가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다(是歲, 江·淮蝗食稼, 大旱).”라고 기록하였다. 당시 수년간 반복된 자연재해로 인한 백성의 피해를 국가가 구제하지 못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재난 중 백성의 절박한 호소를 억압하려는 관리들도 있었으니 이것은 결국 민란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⁴⁹⁾ 특히 병충해는 식량 가격의 폭등을 초래하여

족이 문을 열어 그들을 받아들이자 南詔는 수졸을 모두 죽이고 유사진은 그들에게 항복하였다(舊州刺史喻士珍貪獫, 掠兩林蠻以易金, 南詔復寇舊州, 兩林蠻開門納之, 南詔盡殺戍卒, 士珍降之).

48) <皮子文藪> 卷7.

49) 咸通 8년(867년) 懷州(지금의 河南省 瀋陽市)에서 일어난 사건이 <資治通鑑> 卷250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회주 백성들이 가뭄을 하소연하자 자사 유인규가 방을 걸어 그것을 금기시켰다. 백성이 노하여 서로 더불어 난을 일으켜 유인규를 쫓아냈는데 그는 달아나 농가에 숨었다. 백성이 유인규가 살던 집(州宅)에 들어가 집안의 재물을 빼앗고 누각에 올라 북을 쳤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안정되었다(懷州民訴旱, 刺史劉仁規揭榜禁之, 民怒, 相與作亂, 逐仁規, 仁規逃匿村舍. 民入州宅, 掠其家貲, 登樓擊鼓, 久之乃定).”

백성들은 심각한 기아 상태에 빠져 대규모의 피난민들이 발생했다. 皮日休가 목격한 866년은 이미 淮河 지역의 병충해가 5년간 계속되었으므로 농사를 생계로 하는 백성의 삶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皮日休 〈三羞詩〉의 제3수는 당시의 재난 상황 속에서 백성이 人倫마저 저버리게 하는 비극의 책임 소재를 “司牧者”, 즉 당시의 통치권자임을 비판하고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을 비판하였다.

(3)

- 1天子丙戌年, 천자 병술년에
- 2淮右民多饑, 淮西의 백성 태반이 굶주리네.
- 3就中潁之汭, 영수 물이 굽이져 흐르는 곳에서
- 4轉徙何纍纍, 이리저리 떠돌다가 지치고 지쳤네.
- 5夫婦相顧亡, 부부가 서로 마주 보다 헤어지며
- 6棄却抱中兒, 품 안의 어린애를 버리네.
- 7兄弟各自散, 형제가 각각 흩어지며
- 8出門如大癡, 문을 나서니 바보라도 된 듯하네.
- 9一金易蘆菹, 금 한 덩이를 무로 바꾸고
- 10一縑換臯苳, 비단 한 필을 올방개로 바꾸네.
- 11荒村墓鳥樹, 황폐한 마을 묘지에 새들만 나무에 깃들고
- 12空屋野花籬, 텅 빈 가옥에는 들꽃이 울타리 치고 있네.
- 13兒童齧草根, 아이들은 풀뿌리를 갉아 먹으며
- 14倚桑空羸羸, 뿡나무에 기댄 채 바짝 야위었네.
- 15斑白死路傍, 반백의 노인은 길가에 죽은 채로
- 16枕土皆離離, 흙을 베고 여기저기 흩어져있네.
- 17方知聖人教, 비로소 알았네, 성인의 교화가
- 18於民良在斯, 백성의 편안함, 예 있음.
- 19癘能去人愛, 역병은 사람의 사랑을 없애고
- 20荒能奪人慈, 흉년은 사람의 자비를 빼앗네.
- 21如何司牧者, 어떻게 목자의 소임을 다할지⁵⁰⁾

50) “司牧者”은 백성을 다스리는 일(牧民)을 맡은 자를 말한다. 백성을 통치하는 자를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孟子》의 〈梁惠王〉·〈公孫丑〉 편 등에서 볼 수

- 22有術皆在茲, 그 방법이 모두 여기에 있네.
 23粵吾何爲人, 아아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24數畝清溪澗, 몇 이랑 밭 맑은 시냇가에 두었네.
 25一寫落第文, 낙제 글 쓰고 나자
 26一家歡復嬉, 온 집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네.
 27朝食有麥饅, 아침에 먹을 보리죽 있고
 28晨起有布衣, 새벽에 일어나 입을 무명옷 있네.
 29一身既飽暖, 내 한 몸 배부르고 따뜻하며
 30一家無怨咨, 내 한 집 원망과 탄식 없구나.
 31家雖有畎畝, 집에 몇이랑 밭이 있어도
 32手不秉鎡基, 손에는 괭이를 잡지 않네.
 33歲雖有札瘥, 올해 역병이 돌았어도
 34庖不廢晨炊, 부엌에 아침 짓는 불 꺼뜨리지 않았네.
 35何道以至是,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36我有明公知, 나는 분명 공평을 알고 있거늘.
 37食之以侯食, 먹나니 제후의 음식을 먹고
 38衣之以侯衣, 입나니 제후의 옷을 입네.⁵¹⁾
 39歸時卹金帛, 돌아갈 때는 금 비단을 끊어가⁵²⁾

있다. 《管子》의 제1편의 이름도 〈牧民〉인데 그 중 첫 번째 편인 〈國頌〉에는 “무릇 땅과 백성이 있는 자의 임무는 時務에 있으며 공간을 잘 간수하는데 있다. ……(백성의) 공간이 차야 예절을 알게 되고, 입고 먹는 것이 족해야 영욕을 알게 된다. 윗사람이 법도를 따라야 육친이 평온해진다(凡有地牧民者, 務在四時, 守在倉廩. ……倉廩實, 則知禮節. 衣食足, 則知榮辱. 上服度, 則六親固. 四維張, 則君令行).”라며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먼저 백성의 의식을 해결해 주어야만 예절과 법도를 준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孟子가 王道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 백성의 안정적인 생계를 먼저 보장해야함을 역설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 51) 揚雄, 《法言》 卷9, 〈先知〉, “법이 한도가 없으면 서인도 제후의 밭을 경작하고 제후의 저택에 살고 제후의 음식을 먹고 제후의 의복을 입는다(法無限, 則庶人田侯田, 處侯宅, 食侯食, 服侯服).” 즉 법으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백성들이 자신의 신분과 분수를 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皮日休는 이 구절을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삶을 자책하는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52) “卹”는 “구휼하다”는 의미 외에도 “재단하다”는 의미가 있다. “卹削”은 “의복을 재단하여 몸에 맞추는 것을 형용한다(形容衣服裁制合體).”는 뜻이다. 漢語

- 40使我奉庭闈, 나더러 조정의 시험장에 바치라 하네.⁵³⁾
 41撫已愧穎民, 자신을 돌아보며 영천 백성에게 죄스러우니
 42奚不進德爲? 어찌 덕으로 나아가지 않는단 말인가?
 43因茲感知已, 이에 나를 알아줄 이를 생각하며
 44盡日空涕洟, 종일토록 하릴없이 눈물만 흘리노라.

제1-16구까지는 淮西 지역에서 국가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파괴되고 있음을 조명하였다. 제9-16구는 흉년으로 인한 물가인상으로 사회 취약층이 희생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 이후에 제17-22구에서는 옛 성인의 教化를 이야기하는데 그 教化란 백성의 의식이 충족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 한 것이다. 제23구 이후는 백성과 同苦同樂하지 못하는 수 치심을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그가 관직으로 나아가려는 이유, 즉 백성을 구제할 수 정책을 펼 수 있는 지위를 갖고자 하는 것임을 나타냈다. 제 41-44구는 제3수의 결구이자 〈三羞詩〉 전체의 결구라 할 수 있는데 그가 이 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선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德’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나를 알아봐 주는 “知己”의 부채임을 눈물로 호소하였다.

大詞典編輯委員會, 앞의 책, 964쪽.

- 53) “庭闈”의 “闈”은 고대 궁실이나 후비가 살던 궁전, 궁 안의 문 등을 뜻하는데 과거 시험 혹은 “고대 과거 시험장(指古代科學的試場)”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庭闈”에는 또한 ‘內室’이라는 의미도 있어 “나에게 부모님을 봉양토록 하였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 이것이 백성들은 인륜을 포기할 정도의 굶주림 속에 고통받고 있으나 자신의 가족은 온전한 것에 대한 자괴감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본고에서는 과거를 주재하는 관리들에게 너물로 바치라고 나에게 권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앞의 책, 7176쪽.

Ⅳ. 사상적 근거와 정치관

皮日休는 〈三羞詩〉에서 일관되게 백성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는 儒家의 ‘民本’ 사상을 견지하였다. 그는 차례로 당시의 朝廷·外治·內治의 문제를 노래하였는데 그 사상적 근거는 王道 정치사상이었다. 《皮子文藪》에 수록된 문장들에는 儒學을 부흥시키고 이를 정치이념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儒道로 仁政을 펼친 선왕들을 비롯하여 역대 儒學者들에 대한 칭송이 일관되게 서술되어 있다. 皮日休는 《孟子》를 과거의 정식 과목으로 삼을 것을 주장할 만큼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孟子의 사상에 정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夫孟子之文，絜若經傳。天惜其道，不燼於秦。自漢氏得之，常置博士，以專其學。故其文，繼乎六藝，光乎百氏。”⁵⁴⁾

무릇 맹자의 글은 찬연하기가 경전과도 같습니다. 하늘이 그 도를 아끼셔서 秦 때도 타버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漢氏가 이를 득하여 항시 박사들 두고 그 학문에 전일하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 글은 六經을 계승하고 百家보다 빛났습니다.

이것은 그가 儒家의 道로 기울어가는 唐 왕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儒學 중에서도 특히 王道의 정치이론에 정통한 지식인이 관리로 등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咸通 7년에는 전국에서 통치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생계를 잃은 유랑민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8년 후인 僖宗 乾符 2년(875년)에 王仙芝와 黃巢에 의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 唐은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된다. 皮日休는 위태롭게 기울어가는 시국을 바로 잡기 위하여 儒家를 정치이념으로 삼아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고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

54) 《皮子文藪》 卷9, 〈請孟子爲學科書〉.

하였고 王道 정치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三差詩〉는 철저한 王道 정치의 관점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자신의 희망을 노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제1수에서 君臣의 忠義가 회복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공익을 위해 直諫할 수 있는 忠臣의 필요성과 그를 기용하여 적소에 배치하는 제왕의 책무가 온전히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랐다. 제2수와 제3수에서는 백성의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는 정치가 펼쳐지지 못함을 비판하였다. 孟子는 王道 정치로 백성들이 스스로 따르게 하는 정치를 펼 것을 강조하였다. 齊宣王이 德을 어떻게 행하여야 왕이 될 수 있는가를 묻은 질문에 孟子는 “백성을 보호하며 왕 노릇을 하면 능히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保民而王, 莫之能禦也).”⁵⁵⁾라고 대답한 바 있다. 王道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백성 보호에 둔 것인데 무엇보다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충족시켜 주어야만 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若民，則無恒產，因無恒心。……是故明君制民之產，必使仰足以事父母，俯足以畜妻子，樂歲終身飽，凶年免於死亡，然後驅而之善，故民之從之也輕。今也制民之產，仰不足以事父母，俯不足以畜妻子，樂歲終身苦，凶年不免於死亡。此惟救死而恐不贍，奚暇治禮義哉？……老者衣帛食肉，黎民不飢不寒，然而不王者，未之有也。”⁵⁶⁾

백성이 만약 꾸준한 생업이 없다면 이 때문에 한결같은 선한 마음(恒心)도 없습니다.……이 때문에 명군은 백성들의 생업을 만들어 반드시 위로는 충분히 부모를 모실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충분히 처자를 부양하게 합니다. 풍년에는 늘 배부르게 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한 후에야 (백성을) 선함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백성들은 따르는 것을 가벼이 여깁니다. 오늘날 백성의 생업을 만들어 위로는 부모를 모시기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부양하기 부족합니다. 풍년에도 늘 몸이 고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죽지 않도록 구하는 것만도 넉넉하지 못할까 걱정인데 어찌 禮義로 다스릴 겨를이 있겠습니까?……노인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한 후에도 왕노릇을 못한 자는

55) 《孟子·梁惠王上》 7.

56) 《孟子·梁惠王上》 7.

없었습니다.

皮日休는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하지 않는 관리를 비판하였는데 王道 정치관에 따르면 사실상 그 책임은 최종적으로 제왕에게 있다. 孟子는 또 《孟子·公孫丑下》에서 소와 양을 치는 “목동(牧子)”에 비유해 백성의 굶주림을 하늘의 탓으로 돌리는 관리와 위정자를 비판하고 그 궁극적인 책임이 백성을 정책으로 구제하지 않는 관리, 더 나아가 군주에게 있음을 밝혔다.⁵⁷⁾

孟子는 ‘霸道’를 반대하고 ‘王道’ 정치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皮日休가 제2수에서 무고한 백성이 전쟁에 희생되는 것을 비판하는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孟子의 “지금 천하의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만약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천하의 백성이 모두 목을 빼고 바라볼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감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듯이 쏟아져 내리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今夫天下之人牧, 未有不嗜殺人者也, 如有不嗜

57) 《孟子·公孫丑下》 13에는 孟子가 齊나라 平陸에 가서 흉년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의 책임을 물은 이야기가 있다. ““흉년의 기근이 든 해에 당신의 백성이 늙고 쇠약하여 도랑에 구르며, 긴장한 자들이 흩어져 사방으로 간 이가 몇 천 명이나 됩니다.”라고 하자 공거심은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맹자가 다시 “지금 남의 소와 양을 받아서 그 주인을 위하여 기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를 위하여 목장과 풀을 구할 것입니다. 목장과 풀을 구하지 못하면 소와 양들을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서서 그 죽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공거심이) 말하기를 “이것은 거심의 죄입니다.”라고 하였다. 다른 날 (맹자가 齊나라) 왕을 뵈고 아뢰길 “왕의 도를 다스리는 사람 중 신은 다섯 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자신의) 죄를 아는 자는 공거심이 유일하니 왕을 위해 이를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것은 과인의 죄입니다.”라고 하였다(凶年饑歲, 子之民, 老羸轉於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曰: “此非距心之所得爲也.” 曰: “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 抑亦立而視其死與?” 曰: “此則距心之罪也.”) 他日, 見於王曰: “王之爲都者, 臣知五人焉. 知其罪者, 惟孔距心. 爲王誦之.” 王曰: “此則寡人之罪也.”)

殺人者，則天下之民皆引領而望之矣。誠如是也，民歸之，由水之就下，沛然誰能禦之?”⁵⁸⁾는 南詔를 무력으로 복속시키려 하고 이에 백성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당시 정치를 비판하는 근거였다. 이처럼 〈三羞詩〉는 王道 정치관에 입각한 時政 비판을 詩로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儒家의 전통적인 문학관인 “美刺”의 철저한 계승이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三羞詩〉는 그의 관리로서 자질을 증명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당시 국가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제재로 택하여 비판하고 자신의 정치관을 피력하였다. 그는 사회 최상위 계층인 조정의 통치권자들의 문제가 사회 기반을 이루는 백성들에게 미침을 제1수에서 제3수까지 단계적으로 그렸다. 그는 長安에서 淮南 지역으로 남하하면서 그가 목격한 민생의 현실을 고발하였다. 皮日休는 그의 비판의식을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하는 ‘羞惡之心’을 바탕으로 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감성화하였으며 책임의 소재와 비판의 대상도 皮日休 자신에게로 귀결되는 자괴감의 형태로 노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그가 자괴감을 노래할수록 당시 국정 운영 책임자들의 과실을 반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효과를 내었다.

皮日休는 문학사에서 晚唐의 현실주의적 시인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皮日休의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날카로운 비판은 《皮子文藪》 속에 수록된 〈三羞詩〉와 〈正樂府〉를 포함한 몇 수에 불과하다. 그가 과거 급제 이후에는 이 같은 신랄한 현실 묘사와 비판의식을 드러낸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三羞詩〉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의론적 성격이 뚜렷하며 형식과 내용은 앞서 살펴본 晁錯와 賈捐之의 상소문과도 유사한 점을 볼 수 있다. 皮日休는 美刺의 정신을 계승하여 〈三羞詩〉를 통하여

58) 《孟子·梁惠王上》 6.

時政의 절박한 문제를 상소하고 이를 바로잡는 기회를 얻고자 호소하였다. 그의 현실의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거침없는 창작 정신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현실의 관점에서든 매우 진지하고 용감한 것이기에 그의 시대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과 사명감, 정치와 관직에 대한 신념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이 이 시가 문학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 류성준, 〈晚唐 皮日休 詩攷〉, 《中國學研究》 第4輯, 1988.
- 임원빈, 〈《松陵集》 중의 皮日休 詩歌研究〉, 《中國學研究》 第43輯, 2008.
- 趙翼(이지은 역), 《대당 제국 쇠망사》, 위즈덤하우스, 2018.
- 정호준, 〈皮日休의 〈正樂府十篇〉考〉, 《中國文學》 第70輯, 2017.
- 金靜(강길중 역), 《중국문화와 과거제도》, 중문출판사, 1995.
- 班固, 《漢書》,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 傅璇琮, 《唐代科舉與文學》, 中華書局, 2020.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編纂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2.
- 何先成, 〈唐代的蝗災再認識〉, 《唐都學刊》, 第30卷 第1期, 2014.
- 劉昫 撰, 《舊唐書》,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 李山 注解, 《管子》, 中華書局, 2009.
- 彭定求 主編, 《全唐詩》,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 皮日休 著, 蕭滌非、鄭慶篤 整理, 《皮子文藪》, 上海古籍出版社, 2017.
- [北宋]司馬光 主編, 《資治通鑑》,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 王仲犛, 《隋唐五代史》, 中華書局, 2007.
- 辛文房, 《唐才子傳》, 文淵閣 欽定四庫全書.
- 楊伯峻 譯注, 《孟子》, 中華書局, 1996.

揚雄 著, 韓敬 譯, 《法言》, 中華書局, 2012 .
中華書局編輯部 編, 《全唐文》, 中華書局, 1983.

< Abstract >

Pirixiu, a person in the late Tang Dynasty, compiled 《Piziwenshou》 of total 10 books by collecting his own writings in the 7th year of the reign of Yizong Xiantong in the Tang Dynasty. 〈Sanshoushi〉 is one of 36 poems included in Volume 10 and a group of poems that consists of 3 poems with the titles of “Three types of disgrace”. Pirixiu compiled 《Piziwenshou》 by collecting writings which can show his political view, study, ideas, or refinement to prove that he is perfectly qualified to be a government official. 〈Sanshoushi〉 sharply expressed criticism on politics of the time and his political view. Pirixiu made specific events of reality including Pirixiu's political situations of 7 years, the war with Nanzhao , and failure of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in the whole area of Huaishui as well as Xuzhang his topics. Pirixiu emotionalized his sharp criticism with disgrace and criticized himself with shame. However, his shame eventually had a strategy to reveal political mistakes of the royal court and government officials of the time ironically. He indicated problems of the persons in charge of state affairs in the first poem and described defence matters in the second poem and failure of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in the third poem, which are based on the political view that the people is the basis of politics. In addition, he expresses openness of channels of speech and the necessity of talented persons who can remonstrate with the king. In conclusion, Pirixiu disclosed a national

crisis of the time to people, criticized the people having party presidency who caused it, and furthermore, expressed his wish to correct it by himself through Sanshoushi. For this, he selected the most timely and urgent topic and took a strategy to deliver his political opinions and desire based on the political view based on traditional Confucianism.

Key Words : 〈三羞詩〉(〈Sanshoushi〉), 皮日休(Pirixiu), 《皮子文藪》
(《Piziwenshou》), 정치관(Political view), 현실 비판
(Criticism to social reality)